

기업명	채용규모	전형 방법	직 종
현대	남녀구분없	필기 면접	사무 홍보 사전 산
삼성	100	서류 면접 필기	디자인 사 다보관집
럭키금성	130	서류 면접 필기	전인 조 사 다
대우	180	서류 면접 필기	번역 전 산 다
선경	40	서류 면접 필기	전인 다 자 다
한국화약	30	서류 면접 필기	전 산 홍보
두산	남녀구분없	서류 면접	광고 다 자 다
효성	"	서류 면접	사무 홍보 다
대한항공	20	서류 면접	사무 다
대우건설	20	필기 면접	사무 다
신한공사	30	미 정	사무 다

바늘구멍 취업문을 뚫기 위한 여
대생들의 취업전략과 열기가 어느
해보다 다채롭고 뜨겁다. 취업을 희
망하는 여대생들은 대부분 여름방
학부터 영어 상식등 취업준비 공부
를 해왔으며 9월들어서는 각자가
알고 있는 취업정보를 교환하며 교
내직업포도실등을 분주하게 드나들
고 있다.

특히 최근에는 대기업의 매출여
성 공채볼을 타고 외모나 연봉보다
는 실력으로 취업하려는 여대생들
이 늘어나는 추세다.

『평생직업으로 자부심을 갖고 일
하려면 역시 실력대결밖에 없다』는
생각이 지배적이다. 그런 때문인
지 2학기 들어서는 학과생의 과반
수 이상이 영어 타자 컴퓨터등의 취
업과외공부를 하고 있습니다」梨花
女大 李珠妍양(22)의 말이다.

개인적으로 학원들을 다니며 취업준비를 하는 것 외에 그룹스터디도 활발하다. 경쟁이 치열한 신촌 방송및 광고계에 진출하려는 여대생들끼리 3~6명씩 그룹을 만들어 공부도 함께 하며 정보도 교환하는데 마치 옛날 과의공부처럼 철저한 조직과 규율로 관리된다는 것이다. [좋은 기업체에 취직하기 위해서 취업스터디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.] 서울대 賣도양(23)의 지적이다.

이러한 학생들 개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학교측도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. 여자대학에서는 벌써부터 기업별 채용규모에대한 자료를 입수, 한명이라도 더 취직시키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가하면 동창을 통한 개별적 취업알선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.

예년엔 이맘때면 기업합동설명회가 꼬리를잇는데 올해에는 노사분규 탓으로 이같은 모임이 거의 취소되자 학교당국은 9~10월중에 학교주치의 취업세미나와 강연회를중비중이며 졸업예정자들을 상대로면접요령등을 교육할 예정이다.

打字 컴퓨터등 課外활동... 그룹스터디도 활발

다할 수 없게도 이를 대가없이
은혜의 보람을 얻은 소원이
다. 오성채와 구두를 늘려잡았
고 현대 두산. 호성기 등을 보
남구부에서 특선 시현을하
아성전만 된다면 얼마든지 불
을 제화! 이라고 밝히고있다. 다
만 오성채옹분이 가진 다자
인 판공(판)은 일부로만 한정판

대가정들은 올해 11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일요일까운데 하
나를 택해 공개채용시험을 실
시한다. 따라서 11월 1일과 8
일중 하루에 필기시험 및 면접
시험을 치르게 되므로 한 사람이
동시에 여러군데 입사시험을
볼수 없게 된것(지금까지 밝혀
진 대기업의 채용이사원 채용
제도의 발표참조).

女大生취업 올해도 좁은문



취업알선기관에 몰린 여성구직자들. 취업을 향한 여성들의 열기는 갈수록 높기만하다.

大企業 채용 거의 안하려

[illegible]

정재현(鄭在顯)은 1945년 10월 25일
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괴산리에서
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. 본명은 정재현(鄭在顯)이다.
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괴산리에서
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. 본명은 정재현(鄭在顯)이다.
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괴산리에서
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. 본명은 정재현(鄭在顯)이다.

[illegible]

電算 디자인 廣告등 분야도 제한
외국상사엔 이력서 미리 맡겨야

도를 벗어난다. 실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방인민혁명군보도선대를 창설한 요원의 취임과 함께, 단선대 업무를 비스해 실행과 투철한 정열과 이룩한 취임발언이 "물론 수 있는 바를 다"라는 것을 수 있는 바를 다"라는 것이나, 단선대 창설에 이기 있는 인사를 내두는 것이 좋다. 이로서는 인제 오자가 없도록 하고 또 영구이행은 한자를 많이 쓰고 영구이행에서는 자기 PR의 인쇄할의 없도록 하라고 表慶姫 梨大正영 보도선장은 조언한다.

전방인민혁명군보도선대의 무자 鄭大淳은 비교적 여성 취업이 전되고 또 유망한 부인으로서 영구이행 기자인임을 밝힌다. 영구이행은 오자와 단선대 창설에 이기 있는 인사가 부각되어 단선대 창설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춘 여성이 10월 10일 우를 발령하였기 때문이다. 기 업체의 수효도 꽤 많다는 것. 또 단선대나 단선대 창설에 이기 있는 인사를 내두는 것이 좋다. 이로서는 인제 오자가 없도록 하고 또 영구이행은 한자를 많이 쓰고 영구이행에서는 자기 PR의 인쇄할의 없도록 하라고 表慶姫 梨大正영 보도선장은 조언한다.

전방인민혁명군보도선대의 무자 鄭大淳은 비교적 여성 취업이 전되고 또 유망한 부인으로서 영구이행 기자인임을 밝힌다. 영구이행은 오자와 단선대 창설에 이기 있는 인사가 부각되어 단선대 창설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춘 여성이 10월 10일 우를 발령하였기 때문이다. 기 업체의 수효도 꽤 많다는 것. 또 단선대나 단선대 창설에 이기 있는 인사를 내두는 것이 좋다. 이로서는 인제 오자가 없도록 하고 또 영구이행은 한자를 많이 쓰고 영구이행에서는 자기 PR의 인쇄할의 없도록 하라고 表慶姫 梨大正영 보도선장은 조언한다.